

불교계 복지관, 가정의 달 행사 ‘풍성’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어린이 축구경기 등 프로그램 다양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불교계 복지관은 어르신과 어린이를 위한 행사를 마련한다. 어르신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

는 효(孝) 사상을 고취시키는 행사를 비롯해 장애아동과 지역어린이가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행사들이 여러 지역에서 진행된다.

△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정원) = 5월 7일 중로노인종합복지관과 손잡고 '2012 어버이날 경로행사'를 개최한다. 조계사 경내 야외특설무대에 어르신 3000여 명이 참석할 공간이 마련되며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이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청원 스님은 "매년 어버이날을 맞아 조계사와 두 복지관이 힘을 모아 마련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행사인 만큼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39-9501

△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 5월 12일 '효 사랑나누기 한마당'을 개최, 어버이날 기념식 및 추억의 운동회를 연다. 복지관은 이용어르신들 중 모범이 되는 '훌륭한 어버이'를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하며, 지역 내 인근 운동장에서 큰공굴리기, 이어달리기 등 옛 추억을 되살리는



지난해 5월 어버이날 경로행사에 초청된 어르신들이 즐거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운동회를 열 계획이다. 이 밖에 복지관은 5월 18일 지역내 홀몸어르신들을 모시고 인천 팔미도 나들이를 한다. (02)466-6242

△ 승가원장애아동시설(원장 동옥) = 5월 3일 지역사회어린이를 초청해 요리만들기, 등만들기 등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의식을 개선하고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체험활동을 진행한다. (02)921-6410

△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 = 5월 5~6일 제8회 용호장승축제를 연다. 어린이날 기념공연, 전통체험마당, 가족체험마당, '효 큰잔치', '장수잔치' 등을 펼친다. 행사 참가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현장을 찾으면 된다. (051)628-6737

△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임광수) = 5월 5일 제13회 낙동가족축제를 연다. 지역내 가족 300명이 참가해 ▷동화 속 과제집 만들기 대회 ▷체험놀이마당(풍선아트, 페이스 페인팅, 천연비누 만들기 등) ▷가족 한마음 마당 등을 선보인다. (051)271-0561

“간헐 사찰 아닌 열린 사찰로”

목동 국제선센터, 첫 대중공사… 위상·역할 논의

“국제선센터는 간헐 있으면 안됩니다. 교세확장이 아닌 공동선을 실천할 수 있는 열려있는 협력 공동체가 되어 합니다.”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법정)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대중공사가 열렸다. (오른쪽 사진)



시해한다"며 심성개발을 위한 명상 및 심리상담 프로그램, 공동체적 삶을 구체화한 공부방 등을 제안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법인스님은 국제선센터가 '대승불교운동'을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스님은 "현대적 대승불교운동은 생명, 평화, 나눔 상생의 가치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며 "국제선센터는 이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행복 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명법 스님은 "목동"이라는 뚜렷한 장소성을 가지는 국제선센터가 "한국불교의 바로미터"라고 정의하고 지역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도량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법 스님은 스님은 "오로지 경쟁만을 위한 교육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제

글로벌 비구니 지도자 양성한다

국제선센터, 5월부터 B-G·E·P 프로그램 진행

오는 4월 30일까지 참가자 접수

글로벌 시대를 열어가길 비구니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조계종 목동 국제선센터(주지 법정)는 오는 5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비구니 스님들의 세계화 역량 강화를 위한 B-G.E.P (Bikkhuni-Global Empowerment Project)를 개설하고 오는 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제선센터가 기획한 B-G.E.P 프로그램은 한국 불교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 종교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할 인재 네트워크 구축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매주 일요일 국제선센터에서 12번에 걸쳐 진행하며 전문 교수진의 강의와 워크숍, 원전강독으로 구성된다. 과정 이수 후 선발된 비구니 스님들은 선센터 국제 프로그램과 국제대회에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교육수 구성도 탄탄하다. 지도법사는

국제선센터 국제국장 명법 스님이며, 서울대학교 철학과 조은수 교수, 수미 런던 듀크 대학 불교공동체 지도 법사, 크리스티 창 세계여성불자연합 회장, 샌디에고 대학 불교학 교수 소모 스님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각계 인사 강의를 진행한다.

수준이 높은 교육인 만큼 교육대상과 인원도 기초 영어회화와 독해가 가능한 비구니 스님 20명으로 한정한다. 참가희망자는 국제선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메일(dinnerscent@hanmail.net)로 4월 3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한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에 대해 명법 스님은 "국제적 안목과 커뮤니케이션 기본 태도를 익혀 국제 현장에서 토론과 발표가 가능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배양하는 게 이번 교육의 목표"라고 밝혔다.

“고학력 어르신 위한 취업교육 필요”

서울노인복지센터, 노인취업훈련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절반 이상이 단순노무직을 차지하고 있어 취업직종의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정원) 부설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는 4월 19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노인취업훈련사업 활성화 방안'의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박주임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 과장은 '노인취업훈련사업 활성화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서울시 25개 노인취업알선센터에 구직 등록한 노인 2명 중 1명은 일자리를 찾았는데, 취업직종은 환경미화원, 건물관리 등 단순노무직이 56.7% 차지하고 있어 취업직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노령구직자 6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지식과 경험이 재취업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박주임 과장은 "2010년 은퇴기를 맞은 베이비붐 세대들 80% 이상이 도시에서 거주하고 70% 이상이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단순노무직 보다

자신의 경력을 살리고 자기발전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일을 선호할 것"이라며 "현재 구인직종의 절반 이상이 단순노무직에 편중돼 있는데 고령자취업시장의 확대를 위해 신규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노인취업훈련센터는 베이비붐세대의 유입을 고려해 지난해부터 기업맞춤형 취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원, 배달원 훈련 등 기업맞춤형 교육을 받은 훈련생 71.2%가 취업을 했고, 신규직종훈련인 실버바리스타훈련생의 경우 81.6%가 취업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맞춤형 취업훈련은 고령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직무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모집해 기업 근무환경, 직무내용 등 구인자의 요구에 맞게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취업률이 높고 구직자의 만족도가 높다.

손유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은 "배우고 가르치기 좋아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에 맞는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취미로 난(難)을 키운 어르신을 풍요한 전문가로 양성 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나은 기자

“부처님 진신사리 보러 오세요”

열린선원 개원 7주년 맞아 친견법회 봉행

개원 7주년을 맞은 태고종 열린선원이 부처님 진신사리를 대중에게 공개한다. 열린선원(원장 법현)은 5월 5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위치한 열린선원 법당에서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법회와 특별초청법회를 봉행한다.

제1부 진신사리 친견법회에는 법현 스님이 미얀마 민잔에서 이운한 진신사리 11과를 직접 집례해 친견의식을 진행한다. 제2부 특별초청법회에는 동봉 스님(곤지암 우리절 주지), 김재영 동방불교대

학 교수가 법문과 강연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열린선원은 5월 6일~6월 6일 원내에서 진신사리를 공개한다.

공개 마지막일인 6월 6일에는 태고종 원로 원법 스님 초청다회를 봉행한다. 열린선원은 서울 은평구 역촌중앙시장의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불교기초교리강의, 참선정진, 가족법회, 명상법회를 열어 저자거리 포교원 역할을 하고 있다. (02)386-4755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졸업후까지 매년 학비 지원

월드머시코리아, 26명에게 청소년장학금 전달

(사)월드머시코리아(대표이사 현진)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북돋아줄 교육지원금을 전달했다. 월드머시코리아는 4월13일 전북 철보중학교 강당에서 서울 영등포 지역 및 전

북 철보중고등학교 중교생 26명에게 총 장학금 2천 5백만원어 전달했다.

월드머시코리아는 후원의 지속성을 위해 향후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매년 학비 등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이사 현진 스님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의 꿈은 더욱 굳어질 것"이라며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신종일 기자

曹溪宗 元老 (古佛叢林 方丈) 壽山堂 知宗大宗師 49齋 案内

백양사 문도들은 대중사께서 실천하신 반농반선의 수행가풍을 받들어 수행과 포교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대중사께서는 이른 새벽에 홀로 치시는 단엄端嚴한 죽비소리는 제일 먼저 도량을 일깨우고 청량한 기운을 불어 넣었습니다. “스님노릇 잘 할려면 조석예불 꼭 참석하고 하루 세기 공양 빠지지 않으면 절반은 이룬 것이요, 일상속에서 망상부리지 않고 화두 챙기면 성공하는 것이다.

승려벼슬 닦벼슬만도 못한 것이니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묵이지 말라.”고 하신 대중사의 사자후가 아직도 백암산에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백양사에서는 반선반농의 수행가풍으로 우리곁에 살다 가신 수산지종대중사의 뜻을 기리고 유훈을 되새기는 추모의 자리를 모든 인연있는 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 49齋 日時 : 佛紀 2556(2012)年 4月 24日 10時

◆ 場 所 : 古佛叢林 白羊寺

◆ 問議 連絡處 : 長城 白羊寺 ☎ 061)392-7502

대한불교조계종 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 양 사 주지 시 몽

